

강동구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그린웨이 특성화 연구†

이현삼* · 한봉호** ·곽정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 (재)환경생태연구재단

I. 연구배경 및 목적

강동구는 시가지 확장에 따른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1970년대에 형성된 천호동, 성내동, 길동, 암사동 지역은 공원 녹지가 강동구 도시 지역 중 가장 열악하여 공원녹지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강동구는 도심 외곽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생활 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6년 강동구를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25km의 그린웨이를 계획하고 노선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강동 그린웨이 노선은 강동구 외곽을 환상형으로 연결하였으나, 도심지역과 한강과 연결되는 구간은 특별한 테마가 없고 연결이 단절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동구 생태문화자원의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린웨이 노선을 선정하고 특성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비활성화된 도심노선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강동구만의 생태·역사·문화에 대한 새로운 체험과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린웨이의 노선 선정과 특성화 및 각 거점의 정비를 통해 공원·녹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의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 대상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면적 24,85km²이었고, 인구는 430,684명, 세대수 177,247세대로 18개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하였다. 특성화를 위한 그린웨이 노선은 2006년 강동구를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25km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노선과 거점의 새로운 설정 및 특성화를 위해 강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강동구 도시개요를 파악하고, 기존 강동구 그린웨이의 구성과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존 노선의 문제점을 도

출하였다. 강동구 그린웨이의 새로운 노선 검토와 거점자원의 분석을 위해 강동구의 선형자원과 거점자원 등 그린웨이 자원을 분석하고, 강동구 그린웨이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노선과 거점을 대상으로 그린웨이 구간별 주제설정 및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강동구 도시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행정 동별 인구 구성은 원도심 지역인 천호동, 암사동, 명일동, 성내동, 길동 지역의 인구 구성 밀도가 높았으며, 50대 이상 인구가 많았다. 토지이용은 성내동, 천호동, 암사동 등 원도심은 대부분 고밀화되고, 녹지가 적은 저층 공동주택지였으며, 명일동은 고층공동주택지, 강일동, 상일동은 대부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녹지가 풍부하였다.

2. 강동구 그린웨이 자원

강동구 그린웨이 자원분석은 선형자원과 거점자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선형자원으로 가로수는 65개 노선에 은행나무 비율이 전체의 32%이었고, 가로녹지는 천호대로, 양재대로 등 중심가로 위주로 조성되어 있었다. 도로 및 보도 분석결과, 보도 폭 5m 미만이 약 74%로 대체로 협소하였고, 등산로 폭은 3m미만이 약 81%이었다.

강동구 그린웨이 거점자원 중 도시역사자원은 암사동 선사주거지, 광릉부원군묘, 유창묘역, 구암서원터, 일자산 둔굴, 암사동 고인돌이었다. 도시문화자원은 천호동로테오거리, 강풀만화거리, 동명대장간 등이었다. 강동구 전통시장은 천호신시장 등 10개소로 조사되었다. 공원자원은 강동구 녹지축과 생활권공원 115개소, 하천 4개소이었고, 공공기관녹화는 강동구 청사 조경 등 11개소이었다. 생태자원은 참나무류 자연림과 야생조류 28종, 양서류 9종이 조사되었고,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둔촌, 암사, 고덕 3개소가 파악되었다.

†: 본 연구는 이현삼(2020)의 석사학위논문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임.

3. 강동구 그린웨이 노선 선정

강동구 그린웨이 노선 선정을 위해 선형자원은 보행편의성, 조경성 및 생태성을 기준으로, 거점자원은 연결성, 녹지잠재성, 장소성 및 지역성, 체험활용성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선형자원으로 도시가로는 강동대로, 동남로, 아리수로, 양재대로, 천호대로, 성내로 6길 등 12개 노선 및 산림 능선의 숲길이 선정되었다. 거점자원은 역사자원으로 암사선사주거지, 구암서원터, 일자산둔굴, 문화자원은 천호동로데오거리, 강풀만화거리, 동명대장간, 강동구청이 선정되었다. 생태자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3개소가 선정되어 강동구 생태문화자원을 반영한 그린웨이 노선과 거점자원으로 활용하였다.

4. 강동구 그린웨이 특성화

강동구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그린웨이 노선 선정 후 그린웨이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자원현황 및 기능과 목적에 따라 한강생태문화길, 도시역사문화길, 산림생태문화길, 도시하천문화길 등 4가지 주제를 설정하였다.

한강생태문화길은 고덕천 합수부부터 선사로 출입구까지로 설정하였고, 특성화 방안은 한강둔치 산책로 주변 그늘목 식재와 휴게시설 설치, 생태경관보전지역 안내판 추가 설치 및 하천 생태해설관 설치를 제시하였다. 구암서원터는 화관목 및 역사해설관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으로 하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하였다.

도시역사문화길은 선사로 출입구부터 방아삼거리로, 특성화 방안은 강동대로, 천중로, 풍성로, 성내로 6길 녹화, 전통시장 앞 안내판 설치, 강풀만화거리 골목길 화분 녹화, 천호공원 및 성내공원 화관목 보완식재를 제시하였고, 역사 및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하였다.

산림생태문화길은 일자산, 승상산, 명일공원의 등산로를 연계하는 노선이었다. 숲길 노면정비, 천호대로 및 상암로 띠녹지 보완식재, 일자산 및 명일근린공원 내 야생조류서식처 조성, 체험

프로그램은 환경생태체험과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특성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도시하천문화길은 대명초교입구 사거리부터 실개울길이 조성된 고덕로와 고덕천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하였다. 고덕로 실개울 개선, 둔치 산책로 그늘목 식재, 수변공원 그늘목 식재, 하천 생태체험과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그린웨이 특성화를 제시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강동구 도시외곽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원도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원도심을 통과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린웨이 신규 노선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각 거점과 노선의 특성화를 바탕으로 이용의 활성화 및 구체적으로 그린웨이 노선 주변을 녹화하는 계획안을 제시하여 향후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강동구 원도심 지역의 공원녹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단순한 걷기 위주로 계획된 그린웨이 노선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남성우(2007) 강동구 그린웨이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2. 박병옥(2008) 도시숲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양림산 자연생태조사를 통해서).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환경공학과 석사학위논문. p. 92.
3. 박혜경(2014) 도시정체성 강화를 위한 도시문화자원의 공공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08.
4. 박현만(2012) 지역생태문화 탐방로 조성계획 연구:전라북도 고창군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4.
5. 양석우(2007) 도시 내 그린웨이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 석사학위 논문. p. 9-13.
6. 하해동(2016) 송파구 도시생태문화 탐방로 조성계획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9.